http://doi.org/10.36429/CRRC.36.4

특집논문4

불교에서 점복(占卜)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일고찰: 《점찰경(占察經)》에 나타나는 방편(方便)의 위계(位階) 문제를 중심으로

민 순 의

Ⅰ. 점복의 의미와 종교성

점복(占卜, divination)이란 과거나 현재에 발생한 현상에 대한 의미(意味, significance)를 구하거나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기술(技術, art)을 가리킨다.[1] 한자문화권에서는 점(占)의 의미를 '복(卜)에 따라 말하는 것' 또는 '점대[筮]를 헤아려 화복(禍福)을 아는 일'이라 하고[2] 복(卜)에 대해서는 '거북의 껍질을 구워 그 균열의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여[3] 점복을 수단에 따라 규정되는 좁은 의미에서 파악하거나 심지어 점과 복을 다른 기술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국어에서 '점복', '점', '점치다', '점보다' 등의 용어는 사건 이면에 암시된 의미를 알아맞히고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견하기 위하여 각종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점복의 영어 번역으로 제시되는 'divination'의 라틴어 어원 'divinatio' 또한 '미래를 예견하거나 신이 주는 표시를 설명해 내는 능력(a power in man which foresees and explains those signs

1) Evan M. Zuesse,"DIVINATION,"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2nd ed.), Vol 4,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p. 2369 참조.
2) 《설문해자(說文解字)》, "占, 視兆也, 從卜口." "數筴而知禍福也."; 상기숙,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340쪽에서 재인용.
3) 《설문해자》, "卜, 灼剝龜也, 象炙龜之形."; 상기숙, 위의 글, 40쪽에서 재인용.

which the gods throw in his way)'을 의미한다.[4)5)]

점복은 인류의 문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 그 양상은 문화에 따라 지역색을 반영하여 동원수단과 기술방식 등에서 차별성을 띤다.[6)] 점복의 보편적 실행은 의미의 추구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임을 보여주는 듯하며, 이는 점복의 본질—점복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면!—에 대한 논의가 인간의 종교추구 심성과 별도의 자리에서 시작될 자격이 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어느 단계에서는 종교와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음을 노정한다. 점복과 종교가 모두 사물의 숨겨진 혹은 숨겨진 것으로 믿어지는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 그 둘이 모두 초월자 내지 초월성의 존재—많은 경우 이것은 신(神, god/dess)으로 표현된다—를 전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초월자나 초월성은 의미와 예언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자로서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점복의 유형은 점복수행자의 점복행위 시 상태와 태도에 따라 그들의 즉각적인 예감이 중시되는 직관형(直觀型, Intuitive divination), 수행자가 다소간의 황홀경 상태에서 초월자의 계시를 내려 받아 구술하는 형태의 접신형(接神型, Possession divination), 점복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학덕 높은 수행자(sage)에 의해 이론적으로 해석되는 형태의 지식형(知識型, Wisdom divination) 등으로 나뉘기도 하지만,[7)] 이 모든 경우에 점복을 통해 지시되는 의미와 예언의 근거로서 초월자 혹은 초월성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 수행자들은 모두 매개자로서의 대리인이

---

4) William Smith,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London: John Murray, 1875, pp. 415–418; 웹페이지 'Lacus Curtius h Greek and Roman Divination'(http://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secondary/SMIGRA*/Divinatio.html)에서 재인용, 2019.5.16. 검색.

5) 경우에 따라 자연현상을 뜻대로 부리는 신이한 능력이나 미래에 뜻하는바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행위를 하는 일도 주로 '점술(占術)'이라는 이름 아래 점복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곤 한다. 이는 점복을 기술력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이기도 했던 전근대인의 인식을 반영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각주11) 참조.) 하지만 본고에서는 오직 과거와 미래에 발생한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으로만 점복의 의미를 제한하고자 한다.

6) Evan M. Zuesse, *op. cit.*, pp. 2369–2373.

7) *Ibid.*, pp. 2370–2373 참조. 이중 직관형은 접신형 및 지식형 양자와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 Zuesse 자신도 이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듯 같은 글에서 직관형이 접신형 및 지식형의 원형이 된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직관형–접신형 및 직관형–지식형 사이의 경계를 정도의 차이로 받아들여 명백한 접신성이나 숙련된 지적 체계에 의하지 않는 경우를 직관형으로 이해한다.

라고 간주될 수 있다.

한국의 역사문화에서는 이 모든 유형의 점복이 다 등장한다. 현대 한국인의 점복문화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사주명리(四柱命理), 신점(神占),[8] 해몽(解夢)과 관상(觀相)과 풍수지리[9]는 각각 지식형, 접신형, 직관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10] 전통시대에도 천문, 지리, 복서(卜筮) 등이 국가의 행정력에 포섭되어 시행되었고,[11] 민간에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역학, 점술, 해몽, 관상, 풍수 등의 행위가 행해졌다. 특히 전통시대에 국가 행정력 밖에서 행해진 점복은 많은 경우 승려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12] 더러는 신이한 능력으로 인하여 종교적 카리스마를 획득한 무당들이 불교와 결합하여 스스로를 부처로 자임하며 국가권력에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성장한 사례도 보인다.[13] 이처럼 불교의 승려가 점복의 수행자로 활약하거나 점복수행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가 불교라는 테두리의 언

8) 신점(神占)의 사전적 의미는 '신통한 점'(다음 한국어사전, 2019.5.16. 검색), '신통하게 잘 알아맞히는 점'(네이버 국어사전, 2019.5.16. 검색)이라는 뜻이지만, 현재 일반적으로는 '신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무당이 주로 이 방법에 의하여 점을 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직접적인 신의 계시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동원되는 점술의 기구들이 있을 수 있다.

9) 이 다섯 가지의 선정은 필자의 직관적 연상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한국의 민간신앙을 관찰하여 일련의 저술들을 발표했던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 1891~1968) 또한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と預言)》(1933)에서 그 사례들을 '자연관상점', '동식물 및 기타 사물에 따른 상복(相卜)', '꿈점[夢占]', '신비점', '인위점', '괘점', '관상점', '상지법(相地法)'이라는 분류하에 서술하였고, 이 중 오늘날 크게 중시되지 않는 자연관상점, 동식물 · 사물의 상복, 인위점을 제외한 꿈점, 신비점, 괘점, 관상점, 상지법이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자의 선정이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이중 해몽과 관상과 풍수지리는 나름의 논리와 경험으로 집적된 지식체계를 갖추고 전문수행자들에게 별도의 학습을 요구하므로 지식형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역(周易)》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주명리와 달리 이 세 가지는 즉각적으로 직관적이거나 최소한 일반적인 삶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직관에 의존하며 오랜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직관형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점의 경우 동원되는 점술 기구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직관형이나 지식형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11) 《고려사(高麗史)》 권73, 〈志〉 권제27, '選擧' 1, "그 과거에는 제술업(製述業) · 명경업(明經業) 두 업(業)과 의업(醫業) · 복업(卜業) · 지리업(地理業) · 율업(律業) · 서업(書業) · 산업(算業) · 삼례업(三禮業) · 삼전업(三傳業) · 하론업(何論業) 등의 잡업(雜業)이 있었는데, 각각 그 업으로 시험을 쳐서 출신(出身)을 내려주었다.(其科擧, 有製述 · 明經二業, 而醫 · 卜 · 地理 · 律 · 書 · 算 · 三禮 · 三傳 · 何論等雜業, 各以其業試之 而賜出身.)" 이에 따르면 '잡업' 범주 하에 점복[卜]과 지리 등 오늘날에도 명백히 점복으로 분류되는 기술 외에 의학[醫]과 산수[算] 등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학으로 분류될 만한 기능들도 함께 묶여 있다. 이는 근대 이전의 점복이 술(術) 즉 기술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졌음을 보여 주며, 이는 현대과학의 많은 것들이 점술로부터 진화했거나 여전히 그 일면을 계승하고 있다는 Zuesse(*op. cit.*, p. 2369)의 진단과도 합치한다. 한편 《태조실록(太祖實錄)》에도 "천문 · 지리 · 복서 · 의약 등 혹 한 가지라도 기예(技藝)를 전공한 사람을 자세하게 방문하고 재촉하여 조정에 보내어서, 발탁 등용하는 데 대비하게 하"라는 도평의사사의 상언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개국 직후에도 잡업 즉 술(術)에 대한 고려시대의 인식과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태조실록》 1권, 태조 1.9.24(임인)).

12) 특히 고려와 조선의 개국 시기에 해몽과 풍수지리에 두각을 보이며 국가권력과 강하게 결탁하였던 도선(道詵, 827~898)과 자초(自超, 1327~1405)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밖에도 관상과 점술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다수의 승려들이 이름을 남기거나 또는 남기지 않은 채 사서에 기록되고 있다. 기술을 구사할 줄 아는 승려라는 뜻에서(각주11) 참조) '술승(術僧)'이라는 명칭은 이들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용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병희, 〈高麗時期 術僧의 活動과 그 意味〉, 《석당논총》 6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참조.

13) 최종성, 〈생불과 무당 – 무당의 생불신앙과 의례화〉, 《종교연구》 68, 한국종교학회, 2012, 208–213쪽.

저리로 편입되는 경우,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들이 어떠한 불교적 초월성 내지 그 초월적 권능을 대리하는지 또 그 대리의 불교 교리적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는다. 이들에 대한 언술은 불교라는 종교 내부로부터 발언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발언되고 정리되어, 단지 정치권력의 유지와 강화에 조력한 이들과 그 역할을 긍정시하거나 민중의 신망을 얻어 기존 권력의 전복세력으로 성장한 이들의 해악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것과 같이 오직 평가의 차원에서만 자리매김 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오늘날의 상황으로 눈길을 돌려 보자. 현대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불교신자들이 매년 사찰로 신년운수를 점치러 가는가 하면, 또 적지 않은 승려들이 주역에 의한 사주풀이에 능하며 경우에 따라 신점을 치기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한 유수의 교계신문에서는 특집기사를 통해 "실제 사찰에서는 신년에 신도들에게 삼재(三災)가 들었다며 등(燈)을 밝히라 권한다. … 점이 불교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기사화한 일도 있다.[14] 하지만 아직까지 필자가 그러한 사례를 실제로 목도한 경우는 없다. 교분이 있는 승려의 전언에 따르면 한 세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역 공부는 사교과(四敎科)와 별도로 학승들이 용심하던 분야였다고 하고,[15] 또 현재에도 사찰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사찰 측의 요구에 따라 신년운세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한다고도 하지만, 이 또한 필자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다.

신점과 같은 경우에 이르면 평가는 더욱 야박해진다. 교계에서는 점을 치는 것은 승려의 본분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승려는 기실 승려연하는 무속인

14) 윤완수 · 배희정, 〈佛誕 기획 / 占〉, 《금강신문》, 금강신문사, 2009.9.24.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6), 2019.5.16. 검색.

15) 대표적으로 월정사 조실과 동국대학교 선원장 등을 역임하여 현대 한국불교의 고승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탄허(呑虛, 1913~1983)가 《주역》의 해석에 능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에 불과하므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16] 물론 불교와 무속의 경계를 무 자르듯 가르고, 어떤 행위가 불교'적'이고 어떤 행위가 무속'적'인지 판가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점복이 대중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기능하였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순기능을 강화하여 점복을 불교 내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7] 요컨대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에는 불교계에서 드러내놓고 점복을 행하지는 않으며,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거나 기껏해야 '근기가 낮은 이들을 교화하는 데 유용한 방편수단'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듯 실제로 한국의 불교학계에서는 점복을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렵다.

Ⅱ. 점복에 대한 불교의 근본적 입장

그렇다면 점복에 대한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일까. 한역의 초기불교 경전에서 가장 먼저 점(占)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것은《장아함경(長阿含經)》의 첫 번째 경전인 〈대본경(大本經)〉이다.[18] 석가모니 이전에 출현했다고 믿어지는 과거

16) 윤완수 · 배희정, 앞의 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 중 일부는 무속행위를 통해 돈을 벌어서 사찰과 종단을 세운 경우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속인이 돈을 번 후 삭발염의를 하고, 법당을 짓고 염불을 외우며 불교 사찰 또는 종단으로 등록할 경우 기준이 모호해진다. 이들을 무속인으로 봐야 할까, 스님으로 봐야할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님에게 점을 봐달라는 둥 불교와 점, 무속을 혼동하는 불자들마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불교에 기대어 영업을 하고 있는 무속인들의 행태에 원인이 있다. 이들은 간판에 불교를 암시하는 '만(卍)'자를 써놓거나, 간판에 'xx암' 등을 써놔 사찰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무속인들은 스님들과 불교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제는 무속과 점, 그리고 불교와의 관계성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종단들이 오늘날 고민해야 할 화두다. … 태고종 대외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은 "비난만하고 방치해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범불교적 차원에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지 못한 수행자나 신도들이 불교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기준과 지침, 프로그램과 교육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 윤완수 · 배희정, 위의 글. "동방대학원대학교 신성수 교수는 "불교계에서도 법문 위주의 포교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포교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점'을 대중교화의 한 방편으로 봐 달라"고 주장했다. '부처님을 현대식 상담학의 대가'라고 강조한 신 교수는 "낮은 근기의 방편이라고 버릴 경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강압과 위압적인 방법으로 신도를 대하기보다 상담의 기법을 잘 활용해 영리가 아닌 선의의 목적으로 이끌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상만 교수도 "… 구식 포교 방식에서 벗어나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 현대적 포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사실 이 표현에는 어폐가 있다. 현재 집대성된 한역 불경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정신수대장경은 《장아함경》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다. 한역본 《아함경(阿含經)》의 원본인 산스크리트어 《아가마(Agama)》는 빨리어로 쓰여진 《니까야(Nikāya)》와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경전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장아함→중아함→증일아함→잡아함의 순서로 거론되는 것과는 달리, 소속된 경전들

불(過去佛)들을 소개하고 그 중 첫 번째 부처인 비바시(毘婆尸) 여래의 생애담을 담은 이 경전에서 비바시 여래는 태어난 직후 부왕(父王)의 명에 따라 관상을 보게 된다.

> 태자가 처음 나자 부왕 반두는 관상쟁이와 여러 도술사들을 불러 태자의 상을 보아 그 길흉을 알아보게 했다. 관상가들은 명령을 받아 태자의 상을 보았다. 먼저 옷섶을 헤쳐 그 원만한 상을 보고 서로 점쳐 말했다[占曰].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곳으로 가는 것이 필연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세속 생활을 하면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어 천하의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네 군사가 구족해 바른 법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에 치우치거나 굽음이 없어 그 은혜는 천하에 두루할 것이다. 칠보는 스스로 모여 오고, 천 명의 아들은 건장하고 용맹스러우며 외적을 항복 받아서 무기는 쓰이지 않고 천하는 태평할 것이다. 또 만일 집을 떠나 도(道)를 배우면 반드시 정각(正覺)을 이루어 10호(十號)를 갖추게 될 것이다."[19]

물론 이는 역사상 실존한 석가모니의 생애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석가모니 출생 당시의 인도에서는 이미 관상과 도술에 의하여 미래를 점치는 점복의 풍습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자신의 교리에서 점복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중의 〈세간경(世間經)〉에는 어느 브라만의 질문에

의 길이로 볼 때 장아함의 원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후대에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아함경》의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실제 경전의 편찬사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학계에서는 4대 아함 중 《잡아함경》이 가장 먼저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대정신수대장경을 한역 불경의 주된 전거로 삼고 있으며, 또 일반적으로도 《장아함경》을 《아함경》의 첫 번째로 꼽으므로, 편의상 "한역의 초기불교 경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고 표현하겠다.

19) 〈대본경〉 第一, 《장아함경》 권1, T1-No.0001, 4c20-27, "太子初生, 父王槃頭召集相師及諸道術, 令觀太子, 知其吉凶. 時, 諸相師受命而觀, 卽前披衣, 見有具相, 占曰 : '有此相者, 當趣二處, 必然無疑.若在家者, 當爲轉輪聖王, 王四天下, 四兵具足, 以正法治, 無有偏枉, 恩及天下, 七寶自至, 千子勇健, 能伏外敵, 兵杖不用, 天下太平 ; 若出家學道, 當成正覺, 十號具足.'"

대해 석가모니가 대답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 그때 비가다로가(毘迦多魯迦) 마을에 사는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 공손히 문안드린 뒤 물러나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瞿曇)이시여, 제게는 젊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문(天文)과 족성(族姓)을 알아 대중을 위해 길흉(吉凶)을 점치는데[知天文,族姓, 爲諸大衆占相吉凶],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있고, 없다고 하면 반드시 없으며,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무너진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구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
>
>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젊은 제자가 천문과 족성을 안다는 것은 우선 그만 두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묻겠으니, 당신 생각대로 대답하십시오. 바라문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색은 본래 종자가 없습니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 · 상 · 행 · 식은 본래 종자가 없습니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21]
>
> "당신은 '나의 젊은 제자는 천문과 족성을 알아 대중을 위해 이렇게 말한다. 곧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있고, 없다고 하면 반드시 없다.'고 말하지만, 그 알고 본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문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22]

---

20) 〈(54)세간경〉, 《잡아함경》 권2, T2–No.0099, 13a20–22, "彼時, 毘迦多魯迦聚落有婆羅門來詣佛所, 恭敬問訊, 卻坐一面, 白佛言 : '瞿曇, 我有年少弟子, 知天文,族姓, 爲諸大衆占相吉凶, 言有必有, 言無必無, 言成必成, 言壞必壞, 瞿曇, 於意云何?'"

21) 〈(54)세간경〉, 《잡아함경》 권2, T2–No.0099, 13a23–26, "佛告婆羅門 : '且置汝年少弟子知天文 · 族姓. 我今問汝, 隨汝意答. 婆羅門, 於意云何?色本無種耶?' 答曰 : '如是, 世尊.' '受,想,行,識本無種耶?' 答曰 : '如是, 世尊.' '受,想,行,識本無種耶?' 答曰 : '如是, 世尊.'"

22) 〈(54)세간경〉, 《잡아함경》 권2, T2–No.0099, 13a27–29, "'汝言我年少弟子知天文 · 族姓, 爲諸大衆作如是說, 言有必有, 言無必無, 知見非不實耶?' 婆羅門白佛 : '如是, 世尊.'"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젊은 제자가 천문과 족성을 알아 대중을 위해 말한 것은 '이루어진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지견(知見)과 다르지 않을 않습니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 "세존께서 오늘 잘 설명하신 훌륭한 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진리를 나타내고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비가다로가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중과 함께 기뻐하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갔다.[23]

경전은 인도의 기존 종교전통에서 천문(天文)과 인사(人事)에 대한 지식으로써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해 왔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지만, 점복의 효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五蘊)이 영원하지도 본질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영위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은 현재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되는 과보일 뿐이므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세상의 무상성(無常性)과 무아성(無我性)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존재론적 열락(悅樂) 상태 이외의 초월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계시의 근거로서 외재적 초월자 또는 초월성이 요구되는 점복이란 애당초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에서도 다음과 같은 설법이 등장한다.

---

23) 〈(54)세간경〉, 《잡아함경》 권2, T2-No.0099, 13b3-12, "'於意云何? 汝年少弟子知天文 · 族姓, 爲大衆說, 成者不壞, 知見非不異耶?' 答曰 : '如是, 世尊.' … '世尊, 今日善說勝法, 亦復如是顯現開發.' 佛說此經已, 毘迦多魯迦婆羅門聞佛所說, 歡喜隨喜, 卽從坐起, 禮足而去." 이상 연이어 있거나 인접한 글귀임에도 불구하고 잘게 나누어 길게 인용한 것은 그 의미를 천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선현아, 만일 물러나지 않는 지위의 보살마하살이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뜻 지음을 성취하여 항상 큰 깨달음의 마음을 여의지 않고 청정한 생활[命]을 하기 때문에 주술(呪術)이나 점쟁이[占卜]나 의원[醫藥]등의 온갖 삿된 생활을 하지 않나니[常不遠離大菩提心, 爲淨命故不行呪術,醫藥,占卜諸邪命事],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모든 귀신을 부려 남녀에게 붙게 하여 그의 길흉을 묻지 않으며, 또한 남녀나 크고 작은 축생들에게 주문을 외워 이상한 일을 나타내지 않으며, 또한 수명의 길고 짧음과 재물 · 지위 · 남자 · 여자 등 온갖 좋고 나쁜 일을 점쳐 보지 않으며 또한 추위 · 더위 · 풍년 · 흉년 · 길함 · 흉함 · 좋음 · 나쁨 등을 예언하여 유정들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또한 주문이나 약품을 섞는 등 옳지 못한 도로써 병을 고치거나 권세 있는 사람과 결탁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든 마음으로 남녀를 보고 웃거나 말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느냐? 왜냐하면 선현아, 이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의 제 모양이 모두 공함을 알기 때문이니, 제 모양이 공한 가운데서는 모양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모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의 삿된 생활인 주술이나 의술이나 점이나 관상 등을 여의고[自相空中不見有相, 不見相故遠離種種邪命,呪術,醫藥,占相] 오직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만을 구하여 마침내 모든 유정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느니라."[24]

〈세간경〉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치되, 점복과 관련하여 더욱 풍부하고 친숙

24) 《대반야바라밀다경》 327권, T6–No.220, 674b16–28, "復次, 善現！若不退轉位菩薩摩訶薩, 成就無上菩提作意, 常不遠離大菩提心, 爲淨命故不行呪術 · 醫藥 · 占卜諸邪命事, 不爲名利呪諸鬼神令著男女問其凶吉, 亦不呪禁男女 · 大小 · 傍生鬼等現希有事, 亦不占相壽量長短 · 財位 · 男女諸善惡事, 亦不懸記寒熱 · 豐儉 · 吉凶 · 好惡惑亂有情, 亦不呪禁合和湯藥 · 左道療疾結好貴人, 尙不染心觀視男女歡笑與語, 況有餘事！何以故？善現！是菩薩摩訶薩知一切法自相皆空, 自相空中不見有相 · 不見相故遠離種種邪命 · 呪術 · 醫藥 · 占相, 唯求無上正等菩提, 究竟利樂諸有情類."

한 사례를 들면서도 그것이 공(空)에 대한 이해로부터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을 한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점복의 능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신통력을 불교는 불온시해 왔다. 《반야경(般若經)》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자가 천안통(天眼通) · 천이통(天耳通) · 신경통/신족통(神境通/神足通) · 타심통(他心通) · 숙명통(宿命通) · 누진통(漏盡通) 등 여섯 종류의 수승한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25] 심지어 여러 전생담(前生譚)에서 석가모니 자신도 그 같은 신통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누누이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6] 석가모니는 신통력으로 전법(傳法)을 시도하려 했던 제자에게 그러한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요술 같은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꾸짖으며 전법을 위한 신통력의 사용을 계율로 금지한다.[27] 이처럼 불교는 근본적으로 신통력에 대하여 수행 중 불가피하게 획득되는 능력이지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불가근불가원의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맥락으로 보아도 점복의 능력은 역시 쉽게 수긍되기 어려운 것이었다.[28]

Ⅲ. 《점찰경》의 등장: 점복의 불교 교리적 수용

---

25) 《대반야바라밀다경》 394권, T6–No.220, 1040b16–20, "善現！是菩薩摩訶薩修行般若波羅蜜多時, 由遍觀空方便善巧, 便能引發殊勝神通波羅蜜多, 住此神通波羅蜜多, 復能引發天眼 · 天耳 · 神境 · 他心 · 宿住隨念, 及知漏盡殊勝通慧." 이 여섯 가지는 각각 천상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천안통), 먼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천이통),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타심통),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신족통), 전생을 읽을 수 있는 능력(숙명통),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능력(누진통)으로서 육신통(六神通)이라고 통칭된다.

26)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4권, T3–No.189, 645c1–3, "爾時世尊, 知其爲子故來至此, 若使卽得見耶舍者, 必生大苦, 或能命終, 便以神力, 隱耶舍身.";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T4–No.211)에는 석가모니가 신통력으로 멀리에 있는 상황을 꿰뚫어 보고는 역시 신통력으로 몸을 변화시켜 그에 대처하였다는 레토릭이 반복된다. 가령 "佛在祇洹遙見此人應可化度. 佛以神足化作沙門." (587b20–21)

27) 《사분율(四分律)》, T22–No.1428, 946b13–c25. 이 고사의 주인공인 빈두로(賓頭盧)는 이 일을 계기로 부처에게 열반에 들지 말고 계속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들에게 불법을 홍포하라는 명을 받아 나반존자(那畔尊者)로 남게 된다. 그가 바로 한국 사찰의 주요 전각 중 하나인 독성각(獨聖閣)의 그 독성(獨聖)이다.

28) 그러나 대승불교가 등장할 당시 인도에서는 서민 대중 사이에 이미 주술이나 점복 등의 신행 양상이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며, 대승불교에서도 대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라니[주문]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라니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는 차이가 보이지만 적지 않은 대승경전이 다라니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을 불교적으로 각색하고 불교의 문화와 교리 속에서 온건화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불교가 탄생 당시의 시공간을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습합하며 변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더구나 인도에서 이미 대승불교라는 변곡을 겪은 형태로 그것을 받아들인 동아시아 불교의 경우 변용은 더욱 크고 깊었다. 점복에 내재된 종교성 다시 말해 외재적 초월성 추구의 측면은 대승불교에서 공공연해진 불보살이라는 초월자에 대한 신앙과 맞물려 불교와 결합되기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1장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술승(術僧)[29]들은 점복이 불교에 스며들고 불교가 점복을 받아들인 현상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이 행한 점복의 수행은 불교 스스로에 의해 발언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수행이 어떠한 불교 내적 논리에 의해 해석되고 수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례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이하 《점찰경》)이다. 점을 쳐서 개인의 지난 업과 미래의 과보를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참회의 정도와 수행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점찰경》에는 점복의 수행과 불교의 교리가 교차한다. 게다가 이 책은 무려 '경전[經]'이라는 이름이 달린 채 제작 유통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점찰경》 또는 점찰법회의 존재감은 상당하다. 《삼국유사》에서 원광(圓光, 555~638), 원효(元曉, 617~686), 진표(眞表, ?~?, 경덕왕(742~765 재위) 때의 인물로 추정)와 같은 불후의 스타 승려들과 엮이며 무려 7편이나 되는 기사에서 거론되기 때문이다.[30] 특히 진표와 관련된 3편의 기사[31]에서는 점찰의 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기까지 하다. 《삼국유사》에서 소개된 점찰법의 내용과 수행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9) 각주12) 참조.

30)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원광서학(圓光西學)〉, 〈사복불언(蛇福不言)〉, 〈진표전간(眞表傳簡)〉,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 〈심지계조(心地繼祖)〉,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

31) 〈진표전간〉, 〈관동풍악발연수석기〉, 〈심지계조〉.

① 《점찰경》 2권의 내용에 의거하여 점찰법을 수행한다.(〈진표연간〉, 〈관동풍악발연수석기〉)

② 189개의 간자(簡子)를 던져 점을 친다.(〈진표전간, 〈관동풍악발연수석기〉)

③ 189개의 간자에는 저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각각이 추구하는 수행의 정도가 다르다.(〈심지계조〉)

④ 189개의 간자는 3세(三世)의 선악과보의 차별을 나타낸다.(〈심지계조〉)

⑤ 189개의 간자를 점쳐 보아 점치는 사람의 의지와 간자의 내용이 서로 맞으면 감응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다.(〈심지계조〉)

⑥ 점찰법의 시행은 수계(授戒)와 관련된다.(〈관동풍악발연수석기〉)

⑦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점찰법회를 개최한다.(〈사복불언〉, 〈선도성모수희불사〉)

⑧ 점찰법회를 위한 기금을 보(寶)의 형식으로 마련해 둔다.(〈원광서학〉, 〈선도성모수희불사〉)

⑨ 《점찰경》은 지장신앙과 관련이 있다.(〈대산오만진신〉)

⑩ 그러나 진표의 경우 점찰법의 신앙 대상을 지장에서 미륵으로 전환 또는 확대하였다.(〈진표연간〉, 〈관동풍악발연수석기〉)

여기에서 주요한 키워드는 '《점찰경》 – 189개의 간자 – 점 – 선악과보 및 수행단계 – 수계 – 기금[보] – 법회 – 지장신앙' 등이다. 이로 미루어 점찰법은 189개의 간자를 이용한 도구점(道具占)이고, 그 점으로 밝혀지는 내용은 점치는 이의 과거 · 현재의 업보와 그에 따라 미래에 감당해야 할 과보이며, 업보와 과보에 따라 적절한 수행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수행을 계기로 수계의 기회를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또 지장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 점복의 권위 근거가 지장보살임을 알

수 있는데—물론 그 권위처는 신행의 실제 양상에 따라 미륵보살과 같은 다른 초월적 존재로 전이될 수 있다—, 이는 점찰법이 점괘의 의미가 간자에 명시된 도구점이라는 점에서 접신상태나 별도의 학습이 요구되지 않는 직관형의 점복이지만 동시에 외재적 초월자를 강하게 요청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⑤에서 점치는 사람의 의지와 간자의 내용 사이 합치의 정도가 중시되는 것은 신탁 즉 점복의 결과에 내포된 초월적 의미의 매개자이자 대리인인 점복의 수행자가 그 초월성에 부합해야 한다는—나아가 그 초월성에 부합할 정도의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당위론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기금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법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법회의 성격이 점찰법을 시행하는 모임인지 수계식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수행을 독려하는 설법장인지는 불분명하다.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독립된 경전 속에서 지시되었고 게다가 점복이 수행 및 수계와 관련지어져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점찰경》과 점찰법이 점복을 불교의 교리 속에서 재해석하여 수용한 사례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그런 와중에도 간자를 이용한 점복 자체의 기능과 역할 또한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실제로《점찰경》을 들여다보면 점찰법으로 대변되는 점복의 기능과 불교 교리의 선제적 접근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32] 2권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1권에서 점찰법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뒤 2권에서 본격적인 교리 담론을 펼친다. 먼저 1권에서 이 경전의 설법주(說法主)가 석가모니의 추천을 받은 지장보살임이 밝혀진다.[33] 즉 이 경전의 내용은 지장보살의 가르침인 것이다. 물론 지장보살을 추천한 이는 석가모니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설법의 주체

32)《점찰선악업보경》, T17–No.839, 901c06–910c12.
33)《점찰선악업보경》, T17–No.839, 902a8–10, "佛告堅淨信言：'善哉！善哉！快問斯事，深適我意.今此衆中，有菩薩摩訶薩，名曰地藏，汝應以此事，而請問之. 彼當爲汝，建立方便，開示演說，成汝所願.'"

가 지장보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로 보건대 《점찰경》과 점찰법은 지장 신앙을 신행하던 집단의 창작물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점찰경》 1권에서 제시되는 점복의 내용은 《삼국유사》에 소개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규모가 크다. 경전이 제시하는 점찰법의 종류는 모두 3가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물〉

1. 길다란 직육면체 모양의 목륜상(木輪相)을 새끼손가락 크기로 19개를 깎아 (정확히는 길쭉한 피라미드의 끝을 잘라낸 몸통처럼 한쪽 끝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 10개짜리 셋트, 3개짜리 셋트, 6개짜리 셋트를 갖추어 놓는다. 그 각각의 셋트를 십륜(十輪), 삼륜(三輪), 육륜(六輪)이라고 부른다.
2. 십륜 10개에는 서로 등지는 길쭉한 두 면에 정반대로 쌍을 이루는 선과 악의 업을 각각 적는다. 나머지 두 면은 비워 둔다.
3. 삼륜 3개에는 몸[身], 입[口], 뜻[意] 세 글자를 각각 배대하여 써 두되, 길쭉한 네 면에 서로 다른 길이의 선을 그어 차이가 나게 표시해 둔다.
4. 육륜 6개에는 하나씩 차례대로 길쭉한 세 면에 1, 2, 3을 적어 넣고 남은 한 면은 비우고, 그 다음 막대기에 4, 5, 6을 적어 넣고 남은 한 면을 비우고, 이런 식으로 3개씩 18까지의 숫자를 채워 넣는다. 이로써 6개의 막대기가 모두 한 면씩은 비워진 채로 있게 된다.

〈간자점 수행 방법〉

첫째, 십륜상(十輪相) 점치기: 십륜 막대기 10개를 던져서 10개의 막대기 각각

에서 위에 올라오는 글자를 취한다. 극단적인 경우 10개 모두 선업이 나올 수도 있고, 10개 모두 악업이 나올 수도 있으며, 또 10개 모두 빈 칸이 나올 수도 있다.

둘째, 삼륜상(三輪相) 점치기: 십륜상에서 드러난 업보의 내용이 몸, 입, 뜻 셋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 판단에 부합하는 막대기를 뽑아 던진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라오는 면에 그려진 선의 길이를 본다.

셋째, 육륜상(六輪相) 점치기: 육륜 막대기 6개를 동시에 던져서 위로 올라오는 6개 숫자의 합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6개 숫자의 합은 1에서 63까지 배열된다.(엄밀히 0부터 63까지여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0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행위를 세 번 연속 반복하여 각각 나온 숫자의 합을 다 더한다. 이렇게 하면 그 숫자의 총 가짓수는 1부터 189까지 모두 189개가 된다.(물론 각 숫자의 등장 확률은 균일하지 않다.)

〈 점의 결과가 지시하는 의미 〉

첫째, 십륜상: 과거와 현재에 쌓인 업의 내용과 선악 여부를 알려 준다.

둘째, 삼륜상: 앞선 십륜상에서 발현된 업의 경중을 알려 준다.(긴 것이 중하고 짧은 것이 경함을 의미한다.)

셋째, 육륜상: 미래에 받을 과보의 내용을 알려 준다. 1부터 189까지 각각의 숫자에는 호응하는 과보의 내용이 있으며, 이는 《점찰경》에 일일이 명시되어 있다.

〈 각 점법과 관련된 수행들 〉

1. 십륜상 전: 십륜상을 점치기 전에 불법승 삼보와 지장보살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차례대로 공양과 예배와 서원을 한다.
2. 삼륜상 후: 삼륜상을 친 후에 업장의 경중에 따라 참회의 예식을 올린다. 참회법은 시방제불에게 공양, 명호, 예배를 드리고 점찰 결과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상을 솔직하게 고하고 나서, 다시 깨달음 얻기를 권청(勸請)한 뒤에 회향(回向)[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3. 중간 점검: 이 참회법을 7일 동안 행한 뒤에 다시 십륜상과 삼륜상의 점을 쳐 본다. 결과가 안 좋으면 7일의 참회법을 반복한다. 이 점검은 선업을 가리키는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7일 단위로 되풀이하며 지속된다. 반복된 참회로 과거와 현재의 악업이 소멸된다. 참회의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0일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육륜상 후: 중간 점검에서 좋은 점괘가 나오면 육륜상으로 미래의 과보를 점친다. 합계로 나온 수가 지시하는 과보와 점치는 사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지극한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되풀이한)다.

2권에서는 대승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이 실천해야 할 업(業)의 성격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시종일관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에 근거하는 것으로 관련 경론인 《여래장경(如來藏經)》,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 《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자주 보이며, 특히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1심2문(一心二門)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다.[34] 즉 동아시아의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시된 교리 주제인 여래장 즉 불성사상(佛性思想)의

34) 박미선도 《점찰경》과 여래장사상의 유사성, 특히 《대승기신론》과 동일한 설명구조를 포착하여 중시하였다. 박미선, 〈新羅 占察法會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1-30쪽.

논리에 입각하여 업의 성격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1권의 점찰법 기술과 2권의 여래장 교리 설명이 짜임새 있게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부분은 다만 '업'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하여 한 편에서는 점복 수행의 기술과 참회 수행의 방식에,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바로 그 업의 성격과 의미의 설명에 중점이 맞추어서 서술되며 불완전화음의 변주곡을 그린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점찰이라는 점복의 기술이 유례없이 정교하고 방대하게 체계화됨과 동시에, 또 그것이 여래장/불성이라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가장 중핵이 되는 교리를 깨닫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깨달음을 위하여 수행이 필요하고,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업보의 참회가 필요하며, 그 업보의 내용과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 점복[점찰]을 시행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점복이 불교의 교리 속에 수용되어 안착되는 드문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사실상《점찰경》은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僞經)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 경의 이름은 수나라 때인 594년 법경(法經) 등이 편찬한《중경목록(衆經目錄)》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 목록에서는《점찰경》을 "대부분 제목이 여러 기록과 차이가 나며 문장의 이치가 복잡하여 진위(眞僞)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다시 더 자세히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잠시 의심스러운 책의 부류[疑錄]에 넣어둔다."고 하였다.[35] 같은 수나라 때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편찬된《중경목록(衆經目錄)》—두 목록의 이름이 같다— 에서도《점찰경》은 "이름[名]은 비록 바른 듯하나 뜻[義]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평가되며 위경으로 의심되는 책[疑僞經]의 범주로 분류되었다.[36] 597년 비장방(費長房)이 찬술한《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에 이르러 비로소 '보리등(菩提登)'이라는 사람을《점찰경》의 역자(譯者)로 거론하는 가

35) 法經 撰,《중경목록》권2,〈衆經疑惑五〉, T55-No.2146, 126c1-2, "多以題注參差衆錄, 文理復雜, 眞僞未分, 事須更詳, 且附疑錄." ; 126b29, "占察善惡業報經二卷."
36) 彦琮 撰,《중경목록》권제4,〈五分疑僞〉, T55-No.2147, 150b24, "名雖似正, 義涉人造." ; 172b20, "占察善惡業報經二卷."

운데, "(법경이) 대답하길, '《점찰경》은 목록에 이름이나 번역처가 없고 (경에서 거론하는) 탑참법(塔懺法)도 여러 경들에 보이지 않으므로 유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칙명으로 '이런 것들은 유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37]고 하여 위경으로 분류되었던 경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38] 이처럼 상당한 진위논쟁 끝에 마침내 진경(眞經)으로 인정받은 《점찰경》은 이내 중국에서 널리 유통되었으며, 이는 한국에 《점찰경》을 처음 들여온 것으로 전하는 원광의 활동 시기와도 일치한다.[39][40]

Ⅳ. 점찰/점복의 기능: 방편의 교리적 위계성 문제

그러면 이처럼 《점찰경》이 중국과 한국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을 무엇일까. 다시 경의 처음으로 돌아가자. 경전에서 애초 석가모니에게 설법을 요청했던 이는 견정신(堅淨信)이라는 이름을 지닌 보살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37) 費長房 撰, 《역대삼보기》 권12, T49-No.2034, 106c20-22, "占察經目錄無名及譯處, 塔懺法與衆經復異, 不可依行. 敕云, 諸如此者不須流行."

38) 이상 《점찰경》의 첫 등장 기록과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박미선, 앞의 글, 11-12쪽 참조.

39) 박미선은 원광의 중국유학 및 귀국 시기에 대한 꼼꼼한 논증을 통해 아직 중국에서 《점찰경》이 인정받기도 전에 이미 원광이 이 경전을 국내에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하지만(위의 글, 38-52쪽), 필자는 그의 추정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이므로, 원광의 활동시기가 중국에서의 《점찰경》 진경 인정 시기와 겹친다는 정도만으로 언급하고 말겠다.

40) 중국불교에서 점찰법이 고안되고 유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중국 민간신앙의 영향을 고려할 만하다. 중국인들의 기층 민속에서는 미래의 길흉화복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괘를 치는 일이 일반적이었으며, 대만 등지에서는 오늘날에도 도교 사원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운 기분으로 점괘를 뽑아 보는 모습이 보인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점찰(占察)'이라는 명칭은 '점으로[占] 살핀다[察]'는 의미를 지니지만, 사실상 단순히 '찰간[札]을 뽑는다(또는 뽑아 점친다)[占]'는 의미를 가진 '점찰(占札)'이라는 용어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즉 도교 등 민간신앙에서 일반적인 신행 양상인 점찰(占札)을 불교에서 수용하면서 수행이나 참회라는 측면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오기(誤記)였던 것이다. 중국 명대(明代)의 승려 지욱(智旭, 1599~1655)도 《점찰경》을 참법의(懺法儀)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찰선악업보경행법(占察善惡業報經行法)》(이하 《행법》)을 저술하며 점찰법의 수행적 성격을 부각하여 해석하고 있거니와, 이처럼 중국인의 민속적 신앙행위를 받아들여 불교적 문화[참회와 수행]와 교리[인과론]로 탈바꿈하고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점찰경》과 점찰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욱의 《행법》에 대해서는 최현주, 〈《점찰선악업보경행법》과 실존적 상담의 상관성 고찰〉, 《불교문예연구》 8,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7, 137-139쪽 참조.

"부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세상을 떠나고 바른 법이 소멸된 뒤에 상법(像法)이 다 가고 말법(末法)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때에 사는 중생들은 복은 얇고 대부분 손해되는 일과 괴로움만 많으며, 국토는 자주 혼란하고 재해만 빈번하게 일어나며, 갖가지 재앙과 어려운 일이 닥치고 두려움과 소란이 닥쳐올 것이므로 나의 모든 제자들은 선한 생각을 잃게 되고, 오직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며 아만(我慢)만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 생사에서 벗어나는 요긴한 법은 닦지 않을 것이다. … 이와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되는 일 때문에 부처님의 법 안에서 노둔한 근기와 적은 믿음으로 도를 얻는 이가 지극히 적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점차로 3승(乘)의 안에서 믿는 마음을 성취하는 이도 아주 적을 것이다. 그리하여 온갖 세간에서는 선정을 닦고 배워서 모든 통달하는 일을 내어 스스로 숙명(宿命)을 아는 이는 차츰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후에 말법 세상에 들어가면, 오래오래 지나야 도를 얻을 것이요, 믿음과 선정과 통달하는 일 등을 획득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저 미래 악한 세상에 상법이 다 가고 말법 안에 조그마한 착한 근기를 지닌 이를 위하여 여래께 간청하여 질문하옵니다.

어떤 방편을 써서 깨우치고 인도해야 중생들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으며, 손해 보는 일과 괴로워하는 것을 없애 줄 수 있사옵니까? 저 중생들은 악한 시기를 만남으로 인하여 장애가 많기 때문에 선한 마음은 없어지고, 세간과 출세간의 인과법(因果法) 안에서 자주 의혹을 일으켜서 굳건한 마음으로 오로지 선한 법을 구할 수 없사오니, 이런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구제해야 하겠나이다."[41]

---

41)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T17-No. 839, 901c20-902a7, "子失其善念. 唯長貪瞋嫉妒我慢. 設有像似行善法者. 但求世間利養名稱以之爲主. 不能專心修出要法.爾時衆生. 睹世災亂心常怯弱. 憂畏己身及諸親屬不得衣食充養軀命. 以如此等衆多障礙因緣故. 於佛法中鈍

또 부처로부터 설법의 기회를 넘겨받은 지장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고쳐 묻는다.

"악한 세상은 무슨 방편(方便)을 써야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모든 장애를 여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겠습니까?"[42]

즉 견정신보살은 불법(佛法)이 희미해지고 의심과 자만과 시기심이 들끓는 오탁악세(五濁惡世)의 말법세상에서도 여전히 부처의 가르침을 견지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타인도 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묻는 것이고, 또 그 수단을 명백히 '방편'이라고 언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점찰경》의 내용 전체가 말법세상을 밝히는 방편이며, 그 중에서도 맑은 수행의 자세를 유지하여 여래장/불성의 교리를 증득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3종의 점찰/점복법이 제시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경전의 말미에서도 석가모니의 입을 빌어 이 경전의 이름이 '점찰선악업보(占察善惡業報)'인 동시에 '소제제장증장정신(消除諸障增長淨信)'이자 '선안위설영리겁약속입견신결정법문(善安慰說令離怯弱速入堅信決定法門)'이고, 무엇보다 '개시구향대승자진취방편현출심심구경실의(開示求向大乘者進趣方便顯出甚深究竟實義)'라고 하여,[43] 이 경전의 취지가 "대승을 구하여 향하는 자[求向大乘者]에게 방편으로 나아가게 하여[進趣方便] 깊고 깊은 궁극적 진실의 세계[甚深究竟實義]를 열어 보이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根少信, 得道者極少. 乃至漸漸於三乘中. 信心成就者亦復甚鮮. 所有修學世間禪定, 發諸通業自知宿命者次轉無有. 如是於後入末法中. 經久得道, 獲信禪定通業等. 一切全無. 我今爲此未來惡世像法向盡. 及末法中有微少善根者. 請問如來, 設何方便開化示, 令生信心得除衰惱. 以彼衆生遭值惡時, 多障礙故退其善心. 於世間出世間因果法中數起疑惑. 不能堅心專求善法. 如是衆生可愍可救."

42) 《점찰선악업보경》 권상, T17-No.839, 902b01-2, "惡世衆生, 以何方便, 而化導之, 使離諸障, 得堅固信?"

43) 《점찰선악업보경》 권하, T17-No.839, 910c5-9.

방편이란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일을 쉽고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44]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 사실은 산스크리트의 'upāya'에서 유래한 불교 용어이다. 10바라밀 중 보다 유명하고 연원이 오랜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의 6바라밀을 바로 뒤따르는 7번째 바라밀로서, 보시 · 지계 · 인욕의 세 가지 바라밀을 조력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불광대사전(佛光大辭典)》에서는 "선권(善權) 즉 훌륭한 수단과 방법을 내고, 교묘하게 접근하여 설법하고 안배하여 수행을 항상 정진시키는 기능을 지니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45]

그런데 방편이라는 개념이 교리적인 함의를 다분히 지니는 용례와 단순히 수단이라는 의미의 일상적인 용례로 두루 쓰이는 것은 불교에서도 초창기부터 보이는 현상이었다. 가령 《장아함경》의 첫 번째 경전인 〈대본경〉에서는 부처의 부친이 아들의 출가를 막기 위해 동원했던 세속적 방법 또는 수단이라는 단순한 용례로 방편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46] 그런가 하면 《잡아함경》에서는 8성도(八聖道)로 '바른 소견[正見] · 바른 뜻[正志] · 바른 말[正語] · 바른 행동[正業] · 바른 생활[正命] · 바른 방편[正方便] · 바른 기억[正念] · 바른 선정[正定]'의 여덟 가지가 제시되는데[47] 이는 보다 널리 알려진 8정도(八正道)의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념(正念) · 정정진(正精進) · 정정(正定)'에 해당하며, 약간의 순서상의 어긋남을 고려한다면 바른 방편[正方便]이란 바로

---

44) 다음 한국어사전(https://dic.daum.net/search.do?q=%EB%B0%A9%ED%8E%B8). 사실 이 사전에서도 방편의 두 번째 의미를 "십바라밀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네이버 한국어사전에서도 일상적 용어로서의 뜻과 불교적 의미를 각각 제시하는데, 불교에서 유래한 두 번째 의미를 "〈불교〉 십바라밀의 하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는 묘한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EB%B0%A9%ED%8E%B8&query=%EB%B0%A9%ED%8E%B8&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45) "十波羅蜜之一. 又作善權 · 變謀. 指巧妙地接近 · 施設 · 安排等. 乃一種向上進展之方法."

46) 〈대본경〉 第一, 《장아함경》 권1, T1–No.0001, 6b11–15, "그때 부왕은 잠자코 스스로 생각하였다. '예전에 관상가가 태자의 상을 보고 반드시 출가할 것이라고 말하더니, 지금처럼 즐거워하지 않다가 그렇게 되지나 않을까? 마땅히 방편을 써서 깊은 궁중에 있게 한 뒤 5욕(欲)의 향락으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여 출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는 곧 별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예쁜 채녀들을 가려 뽑아 태자를 즐겁게 하도록 하였다."(爾時, 父王默自思念 : '昔日相師占相太子, 言當出家, 今者不悅, 得無爾乎？當設方便, 使處深宮, 五欲娛樂, 以悅其心, 令不出家.' 卽便嚴飾宮舘, 簡擇婇女以娛樂之.)

47) 〈四二〉, 《잡아함경》 권2, T2–No.0099, 10a16–18.

바른 정진[正精進]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방편에 수행정진이라는 교리적인 의미가 첨가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같은 《잡아함경》의 게송 중 "공부하는 자가 계를 배울 때 곧은 길을 따라가고 방편에 몰두하고 살피고 힘써 자신의 몸을 잘 지켜야 한다."[48]는 부분의 방편 의미도 수행정진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초기불교의 이중적 방편 개념은 이후 대승불교의 전개와 함께 방편의 개념도 함께 발전하는 데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방편이란 깨달음에 도달하는 바른 길의 하나로서 수행 자체를 의미하며 종내는 깨달음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수행교리의 핵심 요소로 발전하지만, 한편으로는 초기의 소박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견지하며 방편을 교리의 위계에서 낮은 자리에 위치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49]

대승불교의 시대에 방편은 부처의 법문 그 자체를 은유하는 것으로까지 위격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법화경(法華經)》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초기불교에서 일반인으로서는 미치기 어려운 경지로 간주되어 차라리 침묵 속에 놓여졌던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는[50] 대승불교도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무엇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 바로 방편이었다. 즉 대승불교에서 "방편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궁극의 진리를 간접적으로 언급 하는 방법이다."[51] 《법화경》은 불승(佛乘)에 대한

48) 〈八二四〉, 《잡아함경》 권29, T2-No.0099, 211c3-6, "爾時, 世尊卽說偈言 : '學者學戒時, 直道隨順行, 專審勤方便, 善自護其身, …."

49) 이 점에서 "방편은 학문적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의미를 가진 친숙한 단어로 여겨졌다. … 그러나 이러한 친숙함 속에 사실은 방편의 진실된 모습이 묻혀 버렸다고 볼 수 있다."는 김종인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방편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한 태도는 그의 말마따나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깊고 묘한 교법을 받을 수 없는 이를 위하여, 그를 깊고 묘한 진실도에 꾀여들이는 수단 방법으로서 권도로 시설한 낮고 보잘 것 없는 법문"(운허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61, 251쪽; 김종인, 같은 글, 137쪽에서 재인용)이라는 식의 나이브한 정의가 통용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의책으로 개발된 교육 방법"으로 이해되어, "말하자면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는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법과 수준으로 진리를 설했다."는 재고되어야 마땅한 '상식'을 야기하였다. 김종인, 〈法華經方便思想에 나타난 해석〉, 《정토학연구》 5, 정토학연구회, 2002, 137쪽. 따옴표 안의 문장은 김종인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함(이하 동일).

50) "그래서 석가는 제자들에게 현상 세계 너머에 대해서 지적인 추측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김종인, 위의 글, 139쪽.

51) 위의 글, 139쪽.

삼승방편설(三乘方便說)을 논하지만, 끝내 그 불승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52] 이런 식으로 부처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거대한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방편은 그 자체가 곧 궁극의 진리인 것으로 논의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기적 용례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방편의 개념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소박한 의미의 도구적 의미로도 혼용되었으며, 그 속에서 방편의 기능에 대한 폄훼적 태도가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같은 태도는 도리어 방편이 없이도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식자들보다 오히려 방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파퓰러(popular)한 불교인들에게 더 많이 견지되었다. 다시 말해 방편 개념의 극단적 혼용 및 그 기능과 성격에 대한 불교대중의 양가적 태도는 그것이 교리 체계의 위계(位階, hierarchy)에서 핵심의 위치를 가질 가능성과 낮은 위계를 지니며 교리의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을 동시에 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가 방편을 앞세워 도달하는 모든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고 자기화하는 회통의 포용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순수한 불교와 그렇지 않은 불교, 근본적인 교리와 그렇지 않은 교리, 학덕이 높은 식자층에게나 수용될만한 수행체계와 대중일반에게 어울리는 신앙체계라는 위계질서를 부지불식간에 내포하게 만든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지위고하와 승속을 막론하고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수행과 신앙을 영위했던 많은 결사들이 그 본보기이다. 하지만 한국의 불교문화를 수놓았던 술승의 다수가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가거나 위정자의 부정적 평가에 포박된 채 기억되어 온 것은 방편이 불교 내에서 주변부에 위계지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위정자

52) 위의 글, 136-141쪽 참조.

와 이익을 함께 하였던 신이한 고승들은 불교 내적인 교리의 차원에서 그 신이성이 조망받지 못한 채 그 역할이 정치의 일부분으로만 기억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또한 동아시아의 역사문화에서 종교(불교)가 시종일관 정치권력의 종속자로 기능해왔던 실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점찰경》이 점복 즉 방편을 다루는 방식은 전복적이다. 《점찰경》과 점찰법은 혹세무민의 수단으로 충분히 간주될 수도 있었던 점복을 방편으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변용하여 수용하면서도, 그 수행 방식과 목적을 설명하는 데에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팽팽히 끌어들임으로써 방편이 수단이면서도 목적일 수 있는 길항적이면서도 회통적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점찰법이 고대의 한때나마 중국과 한국에서 널리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점복이라는 형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서두에 내세우면서도, 점복의 수단을 통해 업과 과보를 설명하고 동시에 참회와 수계와 법회를 연결시킴으로써 교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의 증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고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교가 방편을 다루는 이러한 전향적 태도는 이후 지속성을 지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_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문으로 〈조선 초 법화신앙과 천도의례〉, 〈조선 초 조계종의 불교주도적 자의식과 종파 패러다임의 변화〉, 〈정도전과 권근의 불교이해와 그 의의〉, 〈조선 세종 대 僧役給牒의 시작과 그 의미〉, 〈조선전기 승인호패제도의 성격과 의미〉, 〈조선 초 불교 사장(社長)의 성격에 관한 일고〉, 〈조선전기 도첩제도의 내용과 성격〉, 〈전환기 민간 불교경험의 양태와 유산〉, 〈참법(懺法)의 종교학적 기능과 의미〉, 〈조선전기 수륙재의 내용과 성격〉, 〈한국 불교의례에서 '먹임'과 '먹음'의 의미〉, 〈전통시대 한국불교의 도첩제도와 비구니〉, 〈불교의 자비행에 내포된 행복 메커니즘〉, 〈불교에서 의례의 위치와 역할〉 등이 있다.

nirvana1010@hanmail.net

참고문헌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장아함경》, 《잡아함경》, 《과거현재인과경》, 《법구비유경》.

《대반야바라밀다경》, 《점찰선악업보경》, 《사분율》.

《중경목록》(法經 撰), 《중경목록》(彦琮 撰), 《역대삼보기》.

《불광대사전》.

김종인, 2002, 〈法華經方便思想에 나타난 해석〉, 《정토학연구》 5, 정토학연구회.

村山智順, 1990, 《朝鮮의 占卜과 豫言》, 金禧慶 옮김, 동문선.

박미선, 2007, 〈新羅 占察法會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관성, 2002, 〈大乘佛敎의 方便思想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상기숙, 2001, 〈고대문헌을 통해 본 중국점복신앙〉,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심준보, 2016, 〈불교가 한국인의 수행문화에 미친 영향 –불교 절수행의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10, 한국불교사연구소.

안옥선, 2007, 〈불교에서 본 진리 – 고통, 진리, 진리의 방편성〉, 《범한철학》 44, 범한철학회.

이병희, 2015, 〈高麗時期 術僧의 活動과 그 意味〉, 《석당논총》 6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이학주, 2011, 〈한국인의 점풍속(占風俗)과 《점찰경(占察經)》에 나타난 占의 역할〉, 《비교문화연구》 2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장정태, 2007, 〈삼국유사에 나타난 점복과 예〉, 《신종교연구》 21, 한국신종교학회.

최종성, 2012, 〈생불과 무당 – 무당의 생불신앙과 의례화〉, 《종교연구》 68, 한국종교학회.

최현주, 2017, 〈《점찰선악업보경행법》과 실존적 상담의 상관성 고찰〉, 《불교문예연구》 8,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Zuesse, Evan M., 2005, "DIVINATION,"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2nd ed.)*, Vol 4, Macmillan reference USA.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KOREA/).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다음 한국어사전 (https://dic.daum.net/index.do?dic=kor&q=).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http://kabc.dongguk.edu/).

윤완수 · 배희정, 2009.9.24., 〈佛誕 기획 / 占〉, 《금강신문》, 금강신문사.(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6).

Lacus Curtius h Greek and Roman Divination(http://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secondary/SMIGRA*/Divinatio.html).

국문초록

많은 현대 한국인들이 불교와 점복의 인접성을 상정하지만 사실상 점복에 대한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은 '공(空)에 대한 이해로부터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불교는 동아시아의 민속신앙을 받아들이며 대중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점복의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점찰경(占察經)》이라는 위경과 그것을 근거로 한 '점찰법(占察法)'이라는 수행방식이 고안되었다. 점찰법은 점괘를 뽑아 그 의미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점복의 양식을 띄지만, 《점찰경》에서는 점복 행위와 그 점괘의 의미를 개인의 업보에 대한 해석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참회와 수행을 권장한다. 이는 불교가 타문화의 대중적 신행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불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점찰법은 불교에서 일종의 방편(方便)으로 인식되었고, 일반적으로 방편은 불교의 교리 체계 속에서 낮은 위계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점찰경》과 점찰법은 점복을 방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변용하여 수용하면서도, 그 수행 방식과 목적을 설명하는 데에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팽팽히 끌어들임으로써 방편이 수단이면서도 목적일 수 있는 길항적이면서도 회통적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주제어: 불교, 점복, 점찰경, 점찰법, 방편, 수행

Abstract

Essay on the Way Buddhism Deals with the Divination : Centering around the Hierarchy of Upāya Revealed in *Sutra of Divination*(占察經)

Min, Sun-euy
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e divination performances have long been popular in Korea and intimately related with the Buddhist religious practices in daily life. The Buddhist divination if possible at all is not useful for understanding basic teachings of Buddhist doctrine because this divination practice is not grounded on the Sunyata(空) doctrine. But the Mahayana Buddhism, when deeply spread to Chinese soil, has been accommodated itself with the Chinese folk religions, and exerted to be popularized among the commoners. As one of those folkloric effects was brought in and the divination skills were accepted and finally a forged Buddhist text, *Sutra of Divination(Jeomchal-gyeong*, 占察經), was established in Chinese Buddhism. The methods or skills of how to perform divination are called 'Jeomchal-beob(占察法)', whose theories and guidelines are strictly based on the Buddhist text of *Sutra of Divination*. The Jeomchal-beob seems to be the typical divination practices in Buddhism. Whoever want to do divination firstly picks a sign and ascertains its divinatory meanings in it, the way how to interpret these meanings and accept them as one's destinations are totally at the disposal of the Buddhist doctrinal theories. The *Sutra of Divination* interprets this divinatory sign as the result of one's own karma(業) and advises to do his/her repentances and self-disciplines accordingly.

This Buddhist interpretations of divination are creative while Buddhism in general has adopted the local cultures and adjusted itself into enhancing them into universal features of Buddhism. Jeomchal-beob, a kind of upāya(方便), has usually been treated as a low status in the Buddhist doctrinal system and uniquely accepted as a form of the East-Asian divination. One of the major Buddhist doctrines of repentance and self-discipline of Karma has been adjusted and transformed into Jeomchal-beob. So Buddhist divination of Jeomchal-beob has the dual interpretations that upāya can be retained as both the means and the goal, and the antagonistic against each other as well as the harmonious in favor of each other.

Key Words: Buddhism, divination, *Sutra of Divination*(*Jeomchal-gyeong*, 占察經), Jeomchal-beob(占察法), upāya(bangpyeon, 方便), self-discipline

투 고 일: 2019. 07. 15.
심 사 일: 2019. 08. 25.
게재결정일: 2019. 08. 27.